

1. 政府關聯 施策

◇ 商工部, 中小企業범위 業種別 調整

- 商工부는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를 산업계의 욕구에 맞도록 業種別로 조정할 計劃으로 中小企業의 종업원 규모는 최근 生産性 向上을 위한 製造業의 自動化 投資 擴大로 雇傭人力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現行대로 두고 資產 基準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지속적인 自動化 投資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기로 함.
- 또 製造業 支援 서비스 業種은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속해 있어 中小企業의 從業員 범위가 20人으로 되어 있으나 事業性格이 製造業과 유사하고 해당업종에서 中小企業이 차지하는 比重이 현저히 낮을 경우 從業員 基準을 上向 調整할 예정.
- 商工부는 業種別 中小企業 範圍 調整作業을 완료기로 한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이를 반영, '92年부터 施行할 計劃.

◇ 産業體 기능인력 擴充 方案 마련

- 政府는 人口增加率의 둔화 및 이에따른 經濟活動人口 增加趨勢 둔화로 기능인력난이 '90年代에 계속될 것으로 보고 實業界 高等學校 擴充對策과 더불어 軍보충역 資源의 일부도 기능인력화해 산업계에 대한 技能人力 供給規模를 확충시켜 나가기로 함.
- 政府는 産業分野의 技能人力難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매년 1만~1만5천명을 産業人力으로 활용키 위해 이들이 5年以上 産業體에 勤務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兵役特例規制法 施行

令 改正案”을 확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기로 함.

- 改正案에 따르면 防衛召集對象者가 産業體 勤務를 希望할 경우 연간 對象人員 중에서 해당 事業體와 契約을 체결, 6個月以上 職業訓練(建設業等 特殊分野는 3個月以上)을 거쳐 技能士補이상 資格을 획득하면 5年間을 義務적으로 勤務토록 하고 기초군사교육기간도 4週로 단축키로 했는데 職業訓練 및 軍事訓練期間은 義務勤務期間에 包含하고 이 기간중에는 勞組加入을 금지키로 함.
- 勤務對象業體는 방위산업체 등 현행 현역복무특혜 대상업체이외에 製造業, 建設業, 海運業, 水産業, 鑛業分野 등으로 확대하며 對象特惠業體의 요건도 현행 從業員 200名以上에서 150名以上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며 業種範圍는 工業分野의 경우 중전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석유, 시멘트 등 7個分野에 전기, 비철금속, 특정제어장치 등을 새로 추가하는 方案을 검토중임.

2. 會員社 動靜

◆ 金星產電(株), 음성 기능 커피자판기 개발 판매

- 金星產電(株)(代表: 李喜鍾)는 최근 自動販賣機에 음성합성장치를 이용한 멜로디 機能이 추가된 커피자판기(모델명: GVK-276 HT)를 開發, 市販에 들어감.
- 同社가 販賣에 들어간 음성기능 커피자판기는 顧客이 자판기 이용시 「어서 오세요~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음성이 약 7초간 반복되어 顧客에게 즐거움을 주는 한편, 전조판에 디지털 시계를 부착하여 顧客에 대한

서비스 機能을 한층 強化했을 뿐만 아니라 自販機의 盜難防止를 위해 警報장치를 부착하여 高유 열쇠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해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부저가 울리게 되어 있는 特性을 가지고 있음.

◆ 金星計電(株), 원격 검침 시스템 본격 실용화

- 金星計電(株) (代表 : 成基契)는 電氣, 가스, 熱量, 水道, 溫水 등 5 가지 計量機器 (펄스식)로 원격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 2種을 開發完了, 韓國通信 및 韓國電力公社의 주관하에 실시된 示範運營期間중 1,2 차 합동 평가시 100%의 검침 성공율과 정확도를 나타내는 등 원격검침시스템의 상용화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입증,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實用化가 可能하게 되어 검침원을 가장한 犯罪豫防效果는 물론 향후 韓國通信에서 실시예정인 防犯, 防災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同社가 지난 '87년부터 약 5年間に 걸쳐 10億원에 달하는 研究開發費를 投資, 開發 완료한 원격검침시스템은 國內用으로 전화선 방식의 원격검침용 단말기 (加入者 정합장치 및 원격검침용 펄스식 계량기기) 및 美國地域 輸出用으로 전용선 방식의 원격검침시스템 등 2가지 기종임.
- 또한, 同社는 電氣, 가스, 熱量에 대한 펄스식 계량기기도 開發 공급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와 원격검침시스템과의 연결상태를 시험하여 보다 완벽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信賴度 향상과 價格의 저렴화를 위해 올해안으로 원격검침용 전용 IC의 開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韓國電力公社에서 추진 예정인 動力用 계기 및 다세대용 원격검침 시범운영에도 참가하고 청주소재의 아파트단지에 6月안으로 同 시스템을 設置完了할 예정으로 國內 보급은 물론, 海外市場 개척에도 活性化를 기하여 향후 5年間 1億4千萬\$ 이상의 시스템을 輸出할 計劃임.

◆ 大鵬電線(株), 폼스킨 케이블 工場 竣工

- 大鵬電線(株) (代表: 李正武)가 30 億원을 投資, 이리시 2 工團內에 垆地 7 千 3 百坪, 建坪 4 千 7 百坪 규모의 通信用 폼스킨 케이블 專門 生産工場을 준공.
- 이와 관련 同社는 日本 고베스틸社로부터 폼스킨 生産設備를 導入, 現在 試驗稼動중으로 올해안에 본격 生産에 돌입할 예정인데 폼스킨 生産能力은 1 分當 1 千 5 百 m 규모이며 당분간 輸出에 주력하고 韓國通信의 品質 인증을 받는 내년부터는 내수시장에도 본격 참여할 계획.

◆ 大韓電線(株), KS표시 허가 획득

- 大韓電線(株) (代表: 俞彩濬)는 工業振興廳으로부터 公業표준화법 제 15 조 規定에 의거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에 대한 KS표시 許可를 '91.4.24 획득.
- KS표시 許可 획득 내용

許可番號	規格番號	規 格 名	種 類, 等 級 또는 號 稱
제 8399 호	KS C 3131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3300 V 및 6600 V 원형 연선 및 압축 연선 8 ~ 600 mm ² × 1 C 8 ~ 325 mm ² × 3 C

◇ 亞南産業(株), 印度에 배선기구 제조기술 輸出

- 亞南産業(株) 배선기구 사업부(代表: 鄭泰鴻)는 인도 나리니엔지니어링 스프라이베티社와 배선용 차단기(MCCB) 및 누전차단기(ELCB)의 製品製造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年間 로열티로 인도내 生産販賣總額의 5%를 받게 되며 특히 제조에 必要한 部分品, 生産設費 및 檢査設備, 金型設備 등도 輸出할 計劃으로 이번 技術移轉契約에 따른 技術用 役費로 1차분 2萬\$를 받을 예정.
- 이번 製造技術 輸出은 國內 배선기구업체가 대부분 日本 및 유럽의 先進 技術을 이전받아 배선기구를 생산해 오고 있는 실정에서 國內 자체 개발된 技術이 輸出된 것으로 對內外的으로 國內 배선기구제조 기술의 優秀性을 입증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며 특히 나리니엔지니어링 스프라이베티社가 우리나라를 비롯, 日本·동남아·유럽의 차단기 생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性能 및 品質 檢査를 실시한 결과 同社의 제품을 가장 우수하다고 判定, 技術移轉 제의를 해 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國產製品의 품질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폭제 역할 및 앞으로 輸出增大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金星機電(株), 光産業 및 메카트로닉스 分野에 本格 參與

- 金星機電(株)(代表: 金會水)는 尖端産業 分野인 레이저다이오드, 고회도 LED 등의 光 半導體를 비롯하여 光 應用機器인 레이저 픽업, 레이저 계측기, 光 센서, 바코드리더(스캐너, 디코더, 콘트롤러) 등 신규 尖端 光 産業과 조립 및 운반용 로봇트, 정밀 X-Y테이블 및 프로그래머블 로직콘트롤러 등의 메카트로닉스 專門生産工場으로 育成하기 위한 事業計劃을 確定하고 오는 '93년까지 總 600 億원을 投入 충남 천안에 工場(垆地 4萬5千坪, 建坪 2萬坪)을 建設할 計劃.

- 光 應用 및 메카트로닉스 産業의 技術開發 및 競爭力 強化에 힘쓸 計劃인 同社는 1 段階인 '91 年부터 '94 年까지를 현 國內 保有技術로 가능한 品目 부터 開發해 나가고 高度의 技術이 要求되는 2 段階부터는('95 ~ '99 年) 1 段階의 開發經驗을 토대로 高級技術 製品開發에 主力할 方針.
- 이 事業이 끝나가는 '99 年에는 賣出이 1 兆 4 千億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國內 需要의 輸入代替 效果는 물론 英國, 日本 등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한층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개폐기류 및 차단기류를 生産해 오고 있는 서울 등촌동 工場과 가양동 工場을 비롯 朱安工場의 전동공구, 산업용 로봇, PLC, 카드리더 등도 천안 新 工場으로 移轉하게 되어 기존의 朱安工場은 승강기류 專門 生産工場으로 育成할 계획임.
- 한편, 同社가 本格 參與하게 되는 光 産業은 초고속, 초정밀, 비 접촉 등의 特性을 갖는 産業으로서 지난 '88 年부터 每年 25%씩 成長해 오고 있으나 國內 光 産業은 지금까지 타 産業에 비해 先進國의 尖端技術 移轉 기피와 國內 精密工業의 競爭力 취약, 國內市場의 狹小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낙후된 産業으로서 核心部품을 거의 輸入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91 年 現在 國內 光 産業의 市場規模는 1,100 億원에 달하는데 오는 2 千年에는 13 兆 3 千億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

3. 韓電 消息

◇ 韓電, ACSR-AWOC 電線 購買 확정

- 韓電은 그동안 공급시기를 놓고 大企業과 中小電線業體間에 논란을 빚어온 ACSR-AWOC (알루미늄강선절연전선)을 올해부터 購買기로 최종확정.

- 韓電이 최근 발표한 '91年 物資需給計劃에 따르면 올해 ACSR-AWOC·58 SQ電線 2千2百萬원을 포함 總 3億7千2百萬원 상당의 ACSR-AWOC전선을 購買키로 했는데 당초 韓電이 中小電線業體의 요구에 따라 이 電線의 購買時期를 내년으로 연기할 方針이었으나 이미 이 製品을 開發, 生産해 온 業體의 經營與件을 감안, 일부품목에 한해 購入하게 된 것임.
- 韓電이 올해 시범적으로 ACSR-AWOC電線 3個品目を 購買하고 내년부터 全品目으로 확대할 計劃으로 있고 ACSR-OC電線이 ACSR-AWOC電線으로 대체됨에 따라 中小電線業體들도 이 製品開發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알려짐.

⊕ 火力 發電所 再稼動 計劃

- 韓電은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蔚山火力 2,3 호기, 麗水火力 2 호기, 釜山火力 3,4 호기 등 기름火力發電所 5기 (총 시설용량 91萬kw)를 7月1日부터 再稼動할 計劃.
- 이번 再稼動은 석유과동에 따른 脫油電源 開發事業으로 원자력발전소 建設 및 稼動에 밀려 가동이 중지된 기름발전소를 최근 電力豫備率 저하에 따른 긴급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가동하는 것으로써 再稼動에 앞서 總 920 億원의 豫算을 들여 각 發電所에 150 m 높이의 集合高煙突(굴뚝)과 대기오염방지용 전기집진기 등 環境設備를 중점 보강하는 한편, 發電所 制御系統을 기존 아날로그식에서 최신형 분산디지털 方式으로 교체키로 함.

4. 國內外 情報 및 統計

◇ 日 電力業體, 設備 擴充 拍車

- 日本 電力業界가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設備投資에 나서고 있는데 '91年度 設備投資 總額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4兆2千77億圓으로 알려졌으며 電力 各社는 發電, 送電 능력을 높여 공급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90年 여름의 需要急增의 영향으로 '91年度에 需要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안정적으로 電力을 供給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또한, 電力業界는 '92年度에도 4兆3千16億圓을 計劃, 앞으로도 높은 水準의 投資를 유지할 展望이며 東日本과 西日本이 제휴를 강화, 주파수 變換 設備 능력도 늘릴 계획인데, 전원부문에 대한 短·中期('91~'95年) 증강책으로 가스터빈(122萬kw)과 양수발전(50萬kw) 등을 신규 電源으로 사용하고 長期對策('96~2000年)으로 石炭火力(100萬kw), 액화 천연가스 및 화력(370萬kw) 등을 開發할 예정.
- 주요 電力會社들의 '91年度 設備投資計劃을 보면 東京電力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1兆4千4百50億圓, 關西電力 6千2百68億圓(0.5% 증가), 中部電力 6千7百80億圓(12.6% 증가), 九州電力 3千9百97億圓(4.4% 증가), 中國電力 1千9百6億圓(13.7% 증가), 北陸電力 1千6百44億圓(0.3% 증가) 등으로 나타남.

◇ 埃, UPS市場 擴大 展望

- 이집트에서는 電壓 편차가 심하고 자주 정전되는 경향이 있어 電壓安定 및 순간 정전시 電氣製品을 保護하는 장비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이집트市場에 소개된 UPS는 BOX-type stand-by형과 Slim type stand-by형 두가지가 있으며 電量範圍는 360 VA와 5 KVA가 Lead-acid sealed type batteries와 on line & off line UPS가 주종을 이루고 소형(3 KVA까지)이 80% 정도를 차지하며 전압편차가 심하고 순간정전시에도 전압을 安定的으로 供給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음.

- 현지 生産業體는 3 個社로 모두 個人會社이며 연간 300 ~ 400 臺 가량을 生産, 전체수요의 10%미만을 커버하는데 불과하고 品質이 조악해 輸入에 대한 制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電氣·電子機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UPS市場 규모도 점차 확대추세로 용량별 현지 연간 需要는 3 KVA까지가 약 5千臺, 3 KVA부터 10 KVA까지가 약 1千臺, 그리고 10 KVA이상 대용량의 경우 약 1千臺로 추산됨.
- UPS 취급 輸入商들은 연간 수입신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는데 國別市場占有率은 美國 65%, 프랑스 20%, 英國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美國의 Exide Electronics社 製品이 品質의 우수성과 홍보강화, 컴퓨터 전시회 참가 등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市場進出을 위해서는 製品販賣와 事後 서비스를 겸할 수 있는 信賴할 만한 에이젠트 선정과 현지 市場에서 널리 통용되는 스펙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製品購入後 최소한 1~2年은 品質保證을 할 수 있고 美國, 프랑스 및 英國產보다 낮은 供給價格 등의 要件을 구비해야 市場開拓의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輸入商 名單 >

- Giza Systems Engineering
P.O. Box 1913 Cairo 11511

Tel : 3490140

Tlx : 92096 EKA UN

Fax : 3499253

- Egyptian Advanced Technologies

3, Osman IBN Affan St., Mohandessin, Cairo

Tel : 3443001

Tlx : 22516 BALSUN UN

Fax : 3443001

- Computek

29, Tahrir St., Dokki, Giza, Cairo

Tel : 3485763

Fax : 3603832

- Gila Co.

33, 26 th July St., Cairo

Tel : 763633

Tlx : 92902 TAWAK UN

Fax : 771766

◆ 핀란드, 電氣用品市場 8億 3千萬\$ 규모

- 핀란드의 電氣用品 市場規模는 '90年度 都賣價格 年間賣出額 基準으로 약 F.Mk.30億 (약 8億 3千萬弗)에 이르고 있는데 '90年度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品目を 보면 전구류 매출이 10%정도 감소했고 실외조명시설이 15% 증가, 電線 및 電線材料 賣出이 12.7%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형광등 및 부속설비 매출이 크게 늘어나 '90年度 賣出額이 F.Mk.7億 5千萬에

달한 것으로 調査되었으며 電氣用 난방기구 및 동력선의 매출도 호조를 보여 각각 F.Mk.2 億씩 販賣된 것으로 알려짐.

- 유통구조상 특징은 電氣用品 도매업자연합회 회원사중 Nokia, ABB-Asea Skandia, Onninen 의 3대회사가 80%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갖고 있어 극한 과점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들 3대회사의 市場占有率은 '87年度 50%, '89年度 67%에서 '90年度 80%로 확대되어 점차 集中化現象을 보이고 있는 점과 流通過程에 있어서 점차 많은 需要者들이 중간 流通段階를 생략하고 직접 製造業體 또는 輸入業者들로부터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현재까지 우리나라 電氣用品 輸出業界의 對핀란드 수출은 핀란드법령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他國基準에 비해 엄격한 FIMKO (Finnish Electrical Inapectorate) 의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89年基準 電氣電子製品 總輸出額 약 F.Mk.2 億2千萬) EC統合에 대비, 핀란드도 자국의 안전검사 기준을 유럽 표준에 일치시켜 갈 것이 예상되고 있어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핀란드市場의 특성은 市場規模가 협소해 거의 모든 品目에 걸쳐 다품종 소량주문이 대부분이나 일단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얻게되면 꾸준히 확대되어가므로 우리업체로서는 소량주문에 성실히 응대해감으로써 점차 市場을 구축해 가는 지혜가 必要함.

◇ '92年 世界經濟, 평균 3% 成長 전망

- 國際通貨基金 (IMF) 의 연례 經濟報告書에 의하면 내년중 世界經濟는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 經濟成長率이 3%를 웃돌 것으로 展望되어 작년 2.1% 成長, 금년중 1.2% 成長豫想과 비교할 때 世界經濟가 불황에서

벗어나 성장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이 報告書는 美國을 비롯한 주요경제 先進國의 金利調節에 의한 경기부양조치 배제를 가정한 것으로서, 이자율 인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을 世界經濟 成長의 큰 장애로 分析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經濟分析 觀點은 향후 美國 내 金利調節에 신중한 자세를 표명한 최근의 FRB 입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내년중 東유럽국가들의 經濟轉換과 中南美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支援에 막대한 資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美國 등 주요 先進國家들은 金利調節에 의한 경기부양 조치보다는 재정적자를 최대한 줄여 재원을 축적하는 합리적인 經濟政策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
- 한편 IMF는 내년중 世界經濟 成長을 주도할 국가는 2.7% 성장이 예상되는 美國으로 분석하고 지난 '89年 중반이후 달러貨 평가절하에 힘입어 輸出이 지속적인 增加趨勢에 있는 점을 經濟成長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지난해 5.6% 성장에서 世界經濟不況의 여파로 금년중 3.6%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밝힘.
- 브라질·아르헨티나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南美는 내년중 평균 3.3% 성장이 예상되며, 아프리카 대륙도 케냐·나이지리아·튀니지 등이 地域 선두국가들의 활발한 經濟改革에 힘입어 내년중 평균 5%의 높은 經濟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금년중 5% 成長이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은 걸프戰爭으로 혼란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中東을 제외할 때 내년도도 동일한 수준의 成長이 예상되며 西方 선진국의 經濟支援政策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東유럽국가들도 통계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 반면 東·西獨 통합이후 國內의 經濟·社會面에서 통일의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獨逸은 작년중 4.5% 成長에서 금년 2.8%, 내년에는 1.9%

成長이 예상되어 점진적인 하향국면을 보일 것으로 展望되며 高利率을 유지하고 있는 獨逸政府 經濟政策과 산업전반의 生産力 감소, 그리고 東·西獨 통합에 따른 企業의 탄력성 저하 등이 경기하향국면의 주요원인으로 分析됨.

◆ 電線 輸出 急增

- 電線 輸出이 지난해의 부진에서 탈피, 品質 高級化와 輸出先 다변화 努力에 힘입어 3월말 현재 전년대비 70.4% 증가한 5千6百萬\$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3.4% 감소했던 電線 輸出이 올들어 이같이 증가한 것은 輸出最大市場인 대만·인도·태국 등 東南亞地域에 대한 수출회복세와 이란 등 중동지역 市場開拓 努力의 결과로 분석됨.
- 電線業界에서는 걸프戰爭 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中東地域의 需要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開途國의 光 케이블 設置 事業도 활기를 띠고 있어 輸出도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中小企業振興公團, 支援 對象業體 축소

-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支援事業 對象業體가 50人미만의 유망소기업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小企業, 技術企業, 輸出企業 등으로 세분화돼 中小企業振興公團 등 有望中小企業 발굴지원 기관 등이 무차별적으로 支援하던 것이 최근 商工部의 '有望中小企業 발굴요령'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中小企業振興公團은 50名미만 5名이상의 有望小企業에게만 시설근대화 및 공정개선 등 14個 支援事業을 펼치게 됨.
- 이번 商工部令의 개정으로 中小企業振興公團 등 정부출연기관, 金融機關 등이 自律적으로 발굴하던 有望中小企業이 有望小企業(50人미만)의 경우 금융기관, 산업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有望輸出企業(50人이상)

은 金融機關, KOTRA 등이 각각 전담케 되는데 이같은 조치는 이 制度가 그동안 小企業보다는 中小企業을 위주로 운용되고 각 支援機關別로도 業務가 중복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中小企業振興公團은 50人미만의 小企業중에서도 수도권산업집중을 방지키 위해 지방소재 小企業을 집중 支援할 方針임.

◇ 輸出企業 設備 投資 소극

- 韓國產業銀行이 全國 2千3百69個 企業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設備投資動向 및 展望’에 따르면 올해 民間設備投資는 작년보다 24.5% 증가한 27兆7千8百17億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設備投資增加率은 작년 27.8%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걸프戰爭의 조기종전으로 國際原油價格이 하락하고 世界景氣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企業의 投資마인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電氣電子(17.8%), 鐵鋼(13.7%), 自動車(30.4%), 精油(61.2%), 시멘트(24.5%) 등의 投資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石油化學(-4.5%), 纖維(-5.7%) 등 일부업종은 감소, 제조업전체로는 18.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非製造業은 電力(73.9%), 通信業(12.5%), 運輸業(55.6%)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設備投資가 41.4%나 증가할 것으로 展望.
- 한편 이같은 設備投資를 내용면에서 보면 輸出爲主業體(賣出額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業體)의 投資보다는 內需爲主業體의 投資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輸出爲主業體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2.6%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2.5%가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輸出을 대비한 投資額은 지난해 0.4%가 감소하고 올해는 5.8%가 增加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 輸出展望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반해 內需爲主業體의 設備投資는 지난해 38.8% 증가했으며 올해도 23.0%가 증가하여 內需에 대비한 設備投資額은 지난해 37.2%가 늘어난데 이어 금년에도 2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 報告書는 輸出과 관련된 設備投資가 저조한 것은 保護貿易主義 강화, 製造業競爭力의 열세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회복에 대한 展望이 불투명함에 따른 것으로 分析함.

◆ 電氣機器 最近 輸出 動向

- 總 括

(單位：千\$, %)

區 分	2 月			累 計(1~2月)		
	'90 實績	'91 實績	增加率	'90 實績	'91 實績	增加率
計	46,405	56,492	21.7	86,756	106,757	23.1
重 電 機 器	34,777	35,669	2.6	65,343	72,749	11.3
電 線	11,628	20,823	79.1	21,413	34,008	58.8

○ 品目別 輸出動向

(單位：千\$, %)

區 分		2 月			果 計(1~2月)		
		'90 實績	'91 實績	增 加 率	'90 實績	'91 實績	增 加 率
計		46,405	56,492	21.7	86,756	106,757	23.1
重 電 機 器		34,777	35,669	2.6	65,343	72,749	11.3
回 轉 機 器	發 電 機	2,535	750	-	2,792	1,676	-
	電 動 機	5,819	5,507	-	10,285	8,536	-
	電 動 工 具	650	927	-	1,195	1,781	-
	小 計	9,004	7,184	-20.2	14,272	11,993	-16.0
靜 止 機 器	變 壓 器	13,589	16,510	-	26,442	32,428	-
	遮 斷 器	945	1,229	-	1,583	2,335	-
	開 閉 器	495	463	-	651	651	-
	配電制御裝置	1,151	699	-	2,103	1,285	-
	變 換 器	5,761	6,422	-	10,672	12,532	-
	電 氣 爐	396	239	-	1,632	453	-
	熔 接 機	1,213	486	-	3,577	1,067	-
	小 計	23,550	26,048	10.6	46,660	50,751	8.8
碍 子		34	-	-	194	36	-
其 他		2,189	2,437	11.3	4,217	9,969	136.4
電 線		11,628	20,823	79.1	21,413	34,008	58.8

○ 地域別 輸出動向

(單位：千\$, %)

區 分	重 電 機 器		電 線		計	
	2 月	累 計 (1-2月)	2 月	累 計 (1-2月)	2 月	累 計 (1-2月)
美 國	9,291 (26.1)	15,937 (21.9)	1,169 (5.6)	2,245 (6.6)	10,460 (18.5)	18,182 (17.0)
日 本	10,914 (30.6)	23,078 (31.7)	1,759 (8.4)	3,931 (11.6)	12,673 (22.4)	27,009 (25.3)
東 南 亞	8,285 (23.2)	18,568 (25.5)	8,422 (40.5)	16,129 (47.4)	16,707 (29.6)	34,697 (32.5)
中 東	390 (1.1)	2,041 (2.8)	6,393 (30.7)	6,982 (20.5)	6,783 (12.0)	9,023 (8.4)
E C	2,673 (7.5)	5,167 (7.1)	620 (3.0)	1,295 (3.8)	3,293 (5.8)	6,462 (6.1)
其 他	4,116 (11.5)	7,958 (11.0)	2,460 (11.8)	3,426 (10.1)	6,576 (11.7)	11,384 (10.7)
計	35,669 (100)	72,749 (100)	20,823 (100)	34,008 (100)	56,492 (100)	106,757 (100)

註) () 內는 比重임.

資料) 韓國貿易協會 “輸出·入 統計”

5. 世界 經濟, 貿易 短信

<世界 經濟>

- G-7은 美國의 金利引下 요청을 거부했으나 앞으로 이 問題를 다시 論議하기로 合意(NYT, 4/29)
- 獨逸, 인플레 우려로 美國의 金利引下 요구를 거부(WP, 4/29)
- G-7의 金利引下에 대한 이견이 1987年 IMF, 世界銀行 年차총회에서 美·獨逸間 이견으로 美國의 주가폭락을 야기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FT, 4/29)
-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동구경제에 대해 先進國들은 資金支援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고(ID, 4/29)
- GATT회원국, UR협상을 올해안에 타결시킬 것에 合意하느냐의 여부는 美의 회의 신속승인절차 시한연장과 EC의 農業政策 改革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FT, 4/26)
- 美國은 韓國, 日本 및 EC가 農業政策 改革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JOC, 4/26)

<美 國 經濟>

- 1/4분기 美國經濟는 전반적 약세를 보였으나 行政府는 2/4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展望(WSH, 4/29)
- 경기순환조사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 현재의 美國 景氣 침체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전인 지난 7월에 시작되었다고 공식화(NYT, 4/26)
- 컨퍼런스 보드, 유럽 및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美國經濟 成長 및 安定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NYT, 4/29)

- Hills 美 무역대표가 태국, 중국 및 인도를 지소권 위반 國家로 지정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모면 (JOC, 4/29)
- 美의회는 신속승인절차 시한연장에 대해 찬반 맞서 (FT, 4/26)
- 미·멕시코 自由貿易協定은 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對美市場 進出의 전초기지로서 멕시코에 대한 投資를 촉진할 것이라고 (ID, 4/26)
- 미련준 경기회복을 위해 재할인율을 0.5% 引下한 5.5%로 결정 (NYT, 5/1)
- 대형은행들, 미련준의 재할인율 인하조처에 따라 貸出金利를 9%에서 8.5%로 引下함에 따라 中小企業의 金利負擔을 줄여 경기회복에 도움될 듯 (NYT, 5/2)
- 지난주 發表된 經濟指標, 2/4 분기에는 景氣가 회복될 것이라는 希望에 찬물, 그러나 경기선행지수는 경기회복을 시사 (JOC, 5/1)
- 美상무부, 美國景氣는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報告 (ID, 5/2)
- 일부 經濟學者들, 美國經濟는 곧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나, 美國經濟의 구조적 問題와 人口構造의 變化는 經濟成長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ID, 4/30)
- 부시大統領은 제 3세계로의 무기수출을 우려하여 中國에 대한 통신 위성부품의 輸出을 禁止 (NYT, 5/1)
- 美國商品의 競爭力을 제고시키고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日本 및 獨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미·멕시코 自由貿易協定을 추진해야 한다는 意見 (WSJ, 4/30)
- 부시大統領은 미·멕시코 自由貿易協定을 추진함에 있어서 環境 및 雇傭保障을 약속 (NYT, 5/1)

〈日本 및 아시아 經濟〉

- 獨逸信託管理公社 (German privatization agency)는 東獨地域에 대한 投資에 있어 日本은 美國보다도 더 新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JOC, 5/2)

〈中 東 經 濟〉

- 쿠웨이트 石油은 유전방화의 여파가 심각하여 과거와 같이 쉽게 産 費用으로 生産되지 못할 것이라고 (WP, 5/2)

〈獨逸 및 EC 經濟〉

- 獨逸商業銀行 부총재, 東獨地域의 經濟는 올해말에는 회복을 시작하여 向後 10年間 연간 10%의 成長을 할 것이라고 報告 (JOC, 4/30)
- 對美 및 對日 競争力을 제고하기 위한 1992年 EC 단일시장은 유럽에 대한 輸出 및 直接投資를 增大시키고 있는 日本에게 유리한 方案이 될 것이라고 (JOC, 4/30)

〈蘇聯 및 東歐經濟〉

- 油價引下 및 石油輸出 감소로 蘇聯의 무역적자 증가 (WT, 4/29)
- 고르바초프大統領과 엘친 러시아공화국大統領이 蘇聯의 政治 및 經濟難局 타개에 합의함에 따라, 蘇聯의 改革意志 부활될 듯 (NYT, 4/26)
- 소련중앙정부와 9個 공화국정부가 연방조약에 합의함에 따라 經濟改革 재개에 대한 希望보여 (JOC, 4/26)
- 蘇聯政府와 蘇聯內 공화국과의 協助與否는 金融 및 外換問濟에 달렸다고 (JOC, 5/1)
- 美國產 곡물 구입을 위한 15億달러 상당의 추가 지불보증 요청에 대해 부시大統領은 蘇聯은 합당한 신용도가 없다고 지적 (NYT, 4/26)

- IMF, 발트해연안 공화국에 대한 무력진압 등 政治的 혼란과 經濟改革 失敗로 蘇聯의 IMF 가입문제 및 對蘇 金融支援에 대해 냉담(NYT, 4/30)
- G-1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동구는 점진적 改革보다는 신속한 改革이 必要하다고 보고하고 거시적 經濟安定 및 構造改革을 위해서는 IMF와 世界銀行의 도움이 必要하다고(FT, 4/30)

資料) FT : Financial Times

WP : Washington Post

NYT : New York Times

EL : Electricity International

WSJ : Wall Street Journal

ID : Investor's Daily

JOC : Journal of Commerce

노사화합 기반위에 기업발전 국가번영